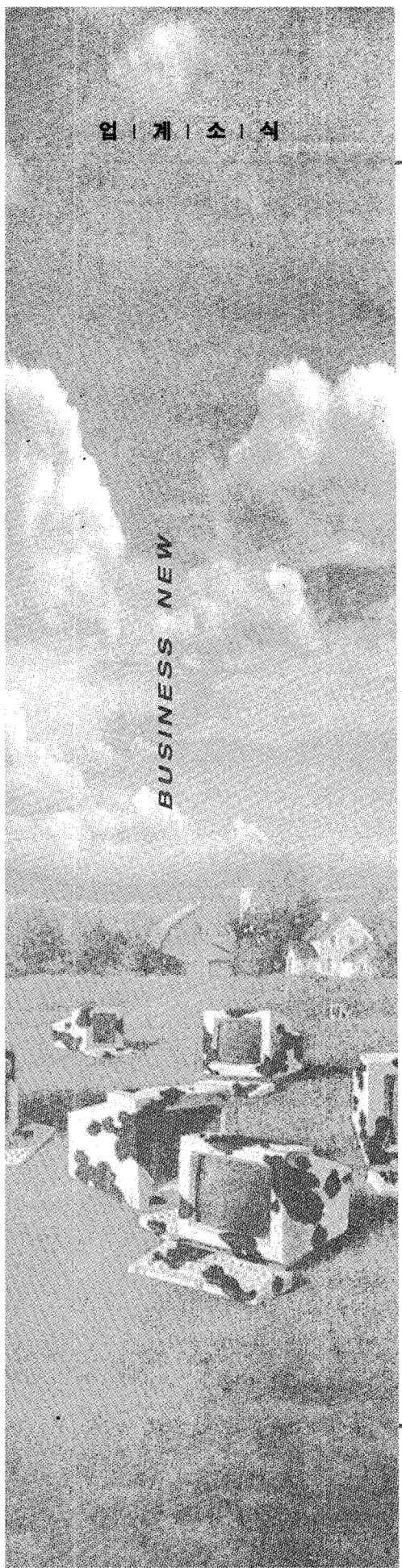


Sunjin (주)선진 새로운 CI 발표 및 중장기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갖져

(주)선진(대표이사 이범권)이 지난 10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새로운 CI 발표 및 중장기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진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선진 관계자 등 내외빈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0년까지 올해 두 배 매출인 6천7백억원, 2015년까지는 매출 1조원 목표 달성을 선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선진이 이번에 새로운 CI를 선정하게 된 것은 기존의 CI로는 앞으로 나아갈 사업구조 변경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격에 미흡하다고 판단, 6개월간의 내부 임직원들의 합의를 거쳐 이번 창립기념일을 통해 발표하게 됐다.

이날 선보인 CI는 기존 CI에서의 축산기업의 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생명을 상징하는 열정적인 레드컬러를 기본색상으로 하고 즐거움과 자연을 상징하는 오렌지와 그린칼라를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또 한글로 나타낸 기존 CI 때문에 해외 진출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영문 소문자 형태인 sunjin을 채택했으며, 고객과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인의 모습을 'j'와 'i' 위의 원형 점(dot)으로 나타냈다.

이날 선진은 CI 발표와 함께 경영 비전도 발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선진은 앞으로 주력사업인 사료 사업부문의 해외 비중 확대와 크린포크 및 육가공 사업의 체질 개선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2010년에는 올해 매출의 2배인 6천7백억원, 2015년에는 1조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돈을 3만두로 늘려 국내 1위의 양돈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사료 연간 1백만톤 판매와 크린포크 50만두 생산, 육가공 브랜드인 SJFam의 가치 창출을 통한 연간 5천톤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등 현재 진출해 있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적어도 신규 거점 6곳 이상을 개척해 오는 2010년부터는 해외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20%를 거두는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날 이범권 대표이사는 "미래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기적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B2B에서 B2C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변화하는 21세기의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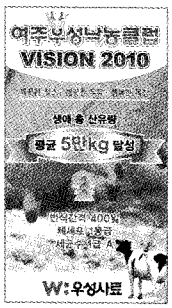
(축산신문10월18일자)

(주) 우성사료

하절기 생산성 콘테스트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9월28일 여주군 소재 강변가든에서 여주지역 낙농인을 대상으로 "하절기 생산성 콘테스트 발표회의"를 실시했다.

여주지역 10개 목장이 참여한 이번 콘테스트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섭취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사전에 막기 위해 5월부터 8월 까지 기간을 정해 우성의 방서대책 사육관리 프로그램과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상거목장(대표 오선영, 여주군 가남면) 이 5월 평균유량 31.7kg, 유지율 4.1%에서 8월 평균유량 34.0kg, 유지율 4.0%로 콘테스트 1위를 차지했으며 10개 농장 평균성적이 평균유량 30.36kg 유지율 3.82%의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전국검정회 평균유량 26.5kg, 유지율 3.76% 와 비교할 때 성적이 저하되는 여름철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우성사료 박종현 지역부장은 "농장의 생산성을 원유 1kg당 생산비를 수치로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유량이 농장의 실질적인 수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농가들은 여주낙농클럽을 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생애 총 산유량 농장평균 5만kg" 의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해 번식성적 콘테스트를 결의했다. 번식성적 콘테스트의 목표는 번식간격 400일, 공태일수 120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10월에 돌입해 06년 2월 28일 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2005우성가족 체육대회 행사 가져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0월 2일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05 우성가족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우성사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사내 체육행사로써 그 동안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우성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성사료 뿐만 아니라 우성양행, 우성운수,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성사료 한 관계자는 "Vision 111, Try Again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베트남에 이은 중국진출을 통한 성공적인 세계화를 다지고 업계 정상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성사료는 수평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는 물론 전임직원들이 하나 된 목표를 향해 강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주) 송강 GLC

심부형 주입기(신형) 주문 폭주

지난 8월 31~9월2일까지 개최된 "KISTOCK2005"에서 큰 호응을 얻은 돼지 인공수정 심부주입기가 농가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주입기는 유럽에서도 이미 검증되어 널리 사용중이며, 풍선형 주입기와는 다른 형태로 자궁속을

헤치지 않으면서도 자궁 속에 정확히 그리고 쉽게 원하는 부위에 주입이 가능하므로 기존 1회용 주입기 사용시보다 수정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주) 코파벳스페셜

2005홀스타인품평회서 많은 관심 불러모아

지난 10월 12~13일 동안 개최된 '2005홀스타인품평회'에서 "양질의 우유, 젖소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참가한 ㈜코파벳스페셜은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한 '환경친화적축우용' 신제품들을 선보여 많은 낙농인들로부터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중에서도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코파벳스페셜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ESS(반추위효소분비촉진제)는 현재 국내 굴지의 여러 사료회사에 매달 대량으로 납품할 정도로 품질과 획기적인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양가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SS는 반추위미생물 내에 존재하거나, 부착되어 이용되지 못하는 효소를 반추위액 중으로 부유시켜 주도록 하는 제제로써,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 소화율 및 사료효율 개선을 가져오는 제품이다. 궁극적으로 유량과 유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분변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 2006년도 환경개선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PC(반추위비분해콜린)와 ATS(고품격 스트레스방지제제) 등 젖소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신제품들도 소개되어 많은 사료업계를 비롯한 양축가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번 품평회에서 소개된 ㈜코파벳스페셜의 신제품들은 기존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는 효능과 기능면에서 모두차별화되어 많은 양축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대한뉴팜

ATAT 2005 목표달성 등반대회

대한뉴팜(대표이사 박명래)은 지난 10월 7~8일 양일간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목표의식 확립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ATAT 2005(Achieving Target All Together)" 목표달성 세미나 및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각 사업부별로 팀(총 10개팀, 동약사업부 팀명 : 원더피그)을 구성하여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을 일주하는 코스(약 6시간 소요)로 이루어진 등반대회를 가졌으며, 낙오자 없이 전원 완주를 펼쳤다.

둘째 날에는 2005년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각 사업부별 전략과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ATAT 2005 목표달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두 함께 목표달성을 이룩하자"는 전체 슬로건을 바탕으로 "V-3 UP (Volume up : 목표달성, Value up : 가치 창조, Vision up : 미래 창출)"을 세부실천 목표로 삼아 전사업부별로 임직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힘찬 도약으로 금년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